

# 충남방언 ‘X]vst + 어요’의 음운론\*

김정태(충남대)

## < 목 차 >

1. 서론
2. 본론

3. 결론

## 1. 서론

대방언권으로서의 중부방언 중 충남방언<sup>1)</sup>의 가장 대표적인 방언적 특징은 상대 높임의 ‘X]vst + 어요’의 구조를 갖는 다양한 서법에서의 실현형들이다. 아래 (1)과 같은 특유의 말투는 더불어 살아온 충남지역 토박이들의 공통된 특색을 대변해 준다.

- (1) 집에 있어요? → 지비 이씨유?~이쑤?(의문형)  
지금 먹어요. → 지끔 머거유.~머그유.(평서형)  
하지 말아요. → 하지 마유.~마르유.~마류.(명령형)  
자, 가요. → 자, 가유.(청유형)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7-A00395)

1) 본고의 대상이 우선 충남지역이므로 충남방언이라 부르고자 한다. 여기에는 대전광역시도 포함된다.

본고는 (1)과 같은 독자적인 충남방언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방언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방언적 특징은 충남방언의 정체성과도 무관치 않은 것이다.

‘X]vst + 어요’의 실현형은 충남방언의 가장 독특한 말투이다. 이러한 특징이 어떤 기제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없다. 충청방언에 대한 많은 논의에서 ‘-요 → [-유]’ 실현형이 이 지역 방언의 특징이 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본 논의의 필요성과 목적이 동시에 담겨 있다.

앞서 김정태(2010:61)은 이 ‘X]vst + 어요’의 해요체 구조에서 ‘-요 → [-유]’ 실현에는 여러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를테면, ‘오 → 우’ 모음상승과 관련된 ‘-요 → [-유]’의 음소 변이 문제, ‘-요, -어요’의 선행 음소에 따른 ‘X]vst + 어요’의 실현형 문제, ‘-어요’의 ‘-어’의 변이 문제, ‘-요 → [-유]’에 수반되는 음장 문제와 문형에 따른 억양 문제,<sup>2)</sup> ‘-요 → [-유]’ 실현형의 지리적 분포 문제 등이 놓여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김정태(2010)은 ‘-요 → [-유]’ 실현형의 지리적 분포 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이 실현형의 외연이 어디까지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았다.

나아가 본고는 ‘-요 → [-유]’ 실현형이 충남방언의 전형임을 전제하고, 이의 특징적인 충남방언형이 단순히 ‘-요 → [-유]’에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음운론적, 음성학적인 현상들이 공모(Conspiracy)하여 특유의 충남방언형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X]vst + 어요’의 충남방언형이 선행 음소와 지역에 따른 형태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유]’ 실현을 공통으로 보여주되, ‘-어요’에 선행하는 음소에 따라 지역적으로 큰 두 부류의 방언형이, 별개의 음운과정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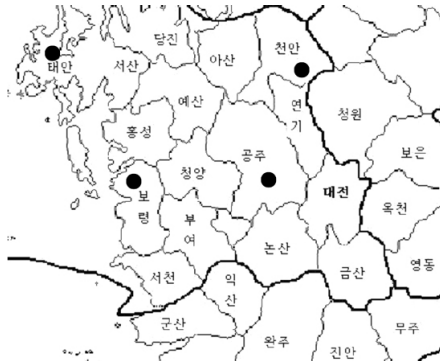
이들 방언형의 음운론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하여 충남 네 지역을 선정하였다. 즉, 공주, 천안, 보령, 태안 등이다.<sup>3)</sup> 충남의 내륙(공주·천안)과 서부 해안(보령·태

2) 문형에 따른 억양도 운율적인 측면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본고는 상승조(의문문), 하강조(평서문), 수평조(명령문, 청유문)로 대별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각 지역의 주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안)을 중심으로 두 곳씩, 또는 경기도(천안, 태안)와 전북(공주, 보령)과의 경계를 중심으로 두 곳씩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들 네 지역은 충남방언을 대표하여 아우른 것으로 본다.

## 2. 본론



〈그림-1〉 충청남도 및 선정 지역의 위치

20. 방언이란 범주화된 공간에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언어이다. 방언은 해당 지역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을 형성해주고, 아울러 반영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 중 말투가 지역 방언의 개성적인 특징이 되고, 인접방언과 변별됨에서, 종결의 해요체 ‘[-유]’는 충남 방언의 전형이 된다.<sup>4)</sup>

충남 방언형의 특징이 되는 이들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네 지역을 대표로 선정하였는바, 우선 지리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네 지역이 어디인가를 보이면 〈그림-1〉과 같다.

이에 본고는 충남방언의 전형이 되는 ‘X]vst + 어요’의 실현형<sup>5)</sup>에, 어떠한 음운론

공주 : 정 규경(男, 74세, 충남 공주시 유구면 입석리 396번지)

천안 : 이 대복(男, 80세, 충남 천안시 직산읍 양당리)

보령 : 최 병식(女, 67세,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태안 : 최 상엽(男, 63세,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63-2)

4) 물론 ‘[-유]’ 실현이 행정구역상 충남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경기도 남부와 충북 서부, 심지어 강원도 영서 일부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도리어 충남의 남부인 전북과의 접경에서는 ‘[-요]’ 실현도 보여 주고 있다. ‘[-유]’의 지리적 분포와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정태(2010) 참조.

5) ‘-요 → [-유]’의 실현은 화자의 연령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또한 이 방언형은 사회, 경제, 교양 등에서 비하의 의미적 자질도 갖고 있다. 방언이나 사투리에 대한 사회적 판단의 결과이다. 본고는 이러한 사회언어학적인 논의는 배제한다.

적 과정들이 관여하여 이와 같은 방언형을 도출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테면, '있어요' 등의 이 지역 방언형을 '이씨유~이쥬'라고 할 때, '있어요'는 '있 + 어 + 요'로 분석된다.<sup>6)</sup> 여기에서 본고는 보조사 '-요 → [-유]' 및 선행 음소에 따른 'X]vst + 어요'에서 '-어'의 변이 문제에 주목하여, 'X]vst + 어요'의 실현의 음운론적 기제가 무엇인가 규명코자 한다. 나아가 'X]vst + 어요'의 실현형은 지역방언으로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도 살펴 볼 것이다.

21. 두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높임의 보조사 '-요'의 '[-유]'로의 변이이다. 이는 김정태(2010:65)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즉 중부방언에서 생산적인 '오 → 우' 모음상승이 기제가 되어, '-요 → [-유]'로 실현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것이 충남방언의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는 것인데, 본고의 대상이 되는 어미뿐만 아니라, 조사, 심지어 명사와 부사 등 어휘형태소와 같은 다양한 위치에도 결합되는 성질을 가진 형태소이다.

(2) 지가유?(제가 + 요?)

빨리유 와유(빨리 + 요 와요)

나는 냉며뉴(나는 냉면 + 요(←이요))

따라서 'X]vst + 어요'의 '-요 → [-유]'실현은 '오 → 우' 모음상승의 결과에서 야기된, 공통된 충남방언형으로 전제한다.

22. 두 번째 문제는 '-어요'의 어간말 선행 음소에 따른 'X]vst + 어요'의 실현형이다. 일반적으로 '-어요'의 '-어'는 선행 음소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변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어간말 모음일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어간말 자음일 경우이다. 이들에 따른 '-어요'의 실현형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앞으로 보일

6) 본고는 '-어요'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전통문법학자들의 견해와 달리, '-어 + 요'처럼 별개의 형태소로 본다. 그러나 기술의 편의를 위해 형태소를 밝힐 경우를 제외하고, '-어요'로 표기하고자 한다.

자료의 '[-유]' 실현은 의문문, 평서문, 명령문 등에서 확인한 것이다. 설명의 필요가 있을 때만 문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용례의 음성형도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만 [ ]에 제시한다.)

- (3) 공주 : 가유, 나가유/건너유/매유, 해유/매유, 세유/괴유  
 천안 : 가유, 사유/근너유/쫄매유, 해유/매유, 세유/괴유  
 보령 : 가유, 사유/매유/매유/괴유  
 태안 : 가유, 사유/허유/매유, 새유/매유, 세유/괴유  
 cf. 근너유<sup>7)</sup>)

(3)은 어간말 모음이 '아, 어, 애, 에, 외'의 경우이다. 대부분의 방언에서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미 두음의 '-어'를 탈락시킨다. 어간말 모음 '아, 어'의 경우는 동음 탈락이 우선하는, 명료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음탈락은 충남 전역에서 관찰되는 방언형이다. 그리고 어간말 모음 '애, 에, 외'도 충남방언에서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여 준다. 여기에서의 '-어'가 어떤 변이 과정을 겪는 지는 잠정 보류하고, 일단 '-어' 탈락에 의한 것으로 본다.<sup>8)</sup> 충남방언에서는 기저에 '-어요'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ㄱ. 공주·천안 : 꺾유, 씨유, 띠유  
 ㄴ. 보령·태안 : 끼유, 쓰유

또한 어간말 모음 '으 + -어요'에서도 '-어'의 탈락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탈락의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차이를 들어내고 있다. 즉 충남 내륙의 공주·천안(4ㄱ)과 서부 해안의 보령·태안(4ㄴ)이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어요'의 음운론적 과정이

7) 특히 '건너-'에 대한 태안 지역은 '근너유'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태안 지역어에서의 어간말 모음 '으'의 실현((4)의 예)에 준하여, 기저형을 '근느-'로 설정하고, '으 → 이' 전설모음화가 수반된 '근너유'로 본다.

8) '-어'의 변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교체, 축약, 탈락 등의 기존 논의가 있어 왔다.(이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는 김옥화(2000) 참조) 본고는 잠정적으로 탈락의 결과로 보지만, 그 탈락은 교체로의 변이에 후행하는 탈락인 것이다.

지역적으로 다름을 암시하는 부분이다.<sup>9)</sup>

직관적으로 공주·천안의 (4ㄱ)은 ‘ㄱ + 어요’의 구조이다. 여기에서의 일반적인 중부방언형 ‘꺼유’는 어간말 모음 ‘으’의 탈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4ㄴ)은 다르다. ‘ㄱ + 어요’에서 ‘꺼유’가 아닌 ‘끄유’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보령·태안 지역에서의 ‘끄유’도 앞에서의 (3)처럼, 잠정 ‘-어’ 탈락으로 본다.

- (5) ㄱ. 공주 : 와유, 봐유, 싸유/뒤유, 쥐유, 썩유  
           천안 : 와유, 봐유, 싸유/뒤유, 쥐유, 썩유  
 ㄴ. 보령 : 오유, 보유, 꼬유/두유, 주유, 썩유  
           태안 : 오유, 보유, 쏘유/주유, 나누유, 썩유
- (6) ㄱ. 공주·천안 : 와야, 봐야, 싸야지, 과야  
                       뒤야, 쥐야, 썩야지, 싸워야  
 ㄴ. 보령·태안 : 오야, 보야, 쏘야, 고야  
                       두야, 주야, 썩야, 꼬누야

충남방언에서는 (5ㄱ,ㄴ)처럼, 어간말 모음이 ‘오, 우’일 경우도, ‘-어요’ 변이의 두 부류가 나타난다. 즉 대부분의 방언에서처럼, 충남 내륙의 공주나 천안(5ㄱ)은 활음화에 의해 모음충돌을 회피하고 있다. (6ㄱ)처럼, ‘-어야’가 통합될 경우에도 활음화를 겪는다. 활음화는 다음 (7)의 용례처럼, 어미 두음 ‘-어’게 연결어미, 종결어미 및 선어말어미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이 경우의 활음화는 서부 해안 지역도 마찬가지로 실현된다.)

- (7) 싸(쏘 + 아), 파서(꼬 + 아서), 봤지유(보 + 았지요), 왔구(오 + 았고)  
       귀(굽 + 어), 쫓지(주 + 었지), 쥐라(주 + 어라), 썩서(수 + 어서), 꺾썩?(꾸 + 었 어요?)

그러나 충남 서쪽 해안(5ㄴ)의 보령이나 태안은 ‘-어’의 탈락형을 보여준다.

9) 공주와 천안, 보령과 태안은 ‘X]vst + 어요’ 실현형의 큰 틀에서 각각 유사하기 때문에 편의상 하나의 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공주와 천안, 보령과 태안 각각에서도 미세한 방언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차이가 본 논의의 전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6-)처럼, '-어야'가 통합될 경우에도 '-어'의 탈락을 보여, (5-), (6-)의 충남 내륙 공주·천안 지역과 좋은 대비를 보여 준다.<sup>10)</sup>

따라서 보령·태안(5-, 6-)의 '오 + 아요 → 오유, 주 + 어요 → 주유, 보 + 아야 → 보야, 쑤 + 어야 → 쑤야' 등의 실현형을 공주·천안의 활음화 실현형과 동일한 음운 변이로 설명하기 어렵다. '으'계 어미초에서 '으' 탈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오 + 으면 → 오문 등), 보령·태안에서는 이들 어간에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의 '-어'는 '-으'로 교체 변이되고(실제 어간말 자음의 경우도 이 지역에서는 '먹 + 어요 → 머그유' 등처럼, '-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어서 탈락이 후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어 → -으'의 교체를 한성우(1996)에서는 후행하는 반모음 y의 동화로 보고 있다. '-으'로의 교체가 '-어요, -어야'가 통합될 때만 실현되고, 여기에는 반모음 y가 공통적으로 후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김옥화(2000)에서 지적한 것처럼, y의 [+전설성]에 의한 위치동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어 → 으' 모음상승이 역사적으로 충남방언에서 적극적이었고, 비어두위치의 문법형태소에서도 실현되는 경우(들더래 → 들드래, 먹더래 → 먹드래, 있더라구 → 이뜨라구, 하면 → 하먼 → 하문(모음상승) → 하문 등)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모음상승 규칙의 확대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sup>11)</sup> 이에 본고는 (5-, 6-)을 '어 → 으' 교체에 이은 탈락으로 보고자 한다. 물론 모음상승 규칙 확대를 보더라도 '-어요, -어야' 두 형태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과연 보편적인 현상인지, 본고도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김옥화(2000)의 전북방언처럼, '어'의 '으'로의 재구조화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사형 어미나 선어말어미 등 모든 '어'가 변이(생략)를 보이는 전북방언과 달리, 충남방언에서는 지리적으로 충남 서부지역과, 형태적으로 '-어요, -어야'에만 국한되는 '어 → 으' 변이이므로, 이를 재구조화로 보는 것도 어려움이

10) 물론 보령·태안지역에서도 활음화가 아주 소극적이거나 발견된다. 여기에는 제보자에 따라, 또는 동일 제보자에게서도 주의적으로 실현된다.

쑤야(쑤 + 아야), 쑤워야(쑤우 + 어야), 치워야(치우 + 어야) 등

11) '어 → 으' 모음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정태(2004) 참조.

있다. 설명이 안 되는 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5ㄴ, 6ㄴ)을 ‘어 → 으’ 모음상승에 이은 탈락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언적 특징은 (8)의 ‘ㅅ, ㅈ’ 불규칙 활용에서도 발견된다. 공주 · 천안은 활음화형이고, 보령 · 태안은 ‘-어’ 변이와 관련된 실현형이다.

- (8) 공주 · 천안 : 뷔유/더워유, 취유, 뜨거워유  
보령 · 태안 : 부유/더우요(보령), 더우유(태안)

다음 (9)도 활용에서 지역 간의 차이를 보여 주는 방언형이다. 이를테면, ‘푸다’의 경우 어간에 ‘-어요, -어야’가 통합될 때이다. ‘퍼유, 퍼야’처럼, 공주와 천안에서는 ‘푸다’의 고어형인 ‘프-’의 활용을 보여주는데, 보령과 태안에서는 어간말 모음 ‘우’의 (5ㄴ, 6ㄴ)처럼, ‘푸유, 푸야’ 등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 외의 두모음 ‘어’가 통합될 때는 충남 전역에서 ‘푸다’의 고어형인 ‘프-’의 활용을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충남방언에서는 어간의 기저형을 ‘푸-’와 ‘프-’로 설정할 수 있고, ‘프-’가 어미 두모음 ‘-어’와 통합되는데, 보령 · 태안의 ‘-어요, -어야’만 기저형을 ‘푸-’로 설정하는 특징적인 모습인 것이다.

- (9) 공주 · 천안 : 퍼유, 퍼야 - 퍼서, 퍼두  
보령 · 태안 : 푸유, 푸야 - 퍼서, 퍼두

아래 (10)의 y계 활음화도 (5)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공주 · 천안 지역에서는 활음화를 겪지만,<sup>12)</sup> 보령 · 태안 지역에서는 ‘-어’ 탈락형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sup>13)</sup> 그리고 어간말 모음 ‘위’의 경우, 활용할 때, ‘위 → 이’로 변이되는

12) 다음의 예들처럼, 내륙에서도 활음화의 환경인 어간말 모음 ‘이 + -어야’의 통합에서 소극적으로 ‘-어’의 변이가 발견된다. ‘-어요’와 ‘-어야’에서의 ‘-어’ 변이의 차이인 것이다. 그렇지만, ‘-어야’에 본 논의의 초점이 놓여 있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진행하지 않는다.

옹겨드리아쥬(옹겨드려야지요), 옹기시야(옹기셔야), 때리야니깨(때려야니까), 지야지(찌야지),  
치야(도랑을 쳐야), 자부댕기야(잡아 땡겨야), 돌리야(돌려야),

경우가 있다. 이때는 어간말 모음 '이'와 동일하게 활용한다.<sup>14)</sup>

- (10) 공주·천안 : 셔유, 고쳐유, 미겨유, 왕겨유/셔유(← 쉬 + 어요)  
 보령·태안 : 시유, 고치유, 키유, 별리유/쉬유(쉬 + 어요, 보령), 시유(쉬 + 어요, 태안)

결국, 어간말 모음에 통합되는 어미 두음 '-어'의 변이는 충남 서부지역과 내륙지역에서 달리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같은 충남방언에서도 'X]vst + 어요'의 실현형에 별개의 음운과정이 있고, 그 결과가 지역적 차이로 드러남을 알려주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간말 모음 + '-어요'의 통합형〉

첫째, 어간말 모음 '아, 어, 애, 예, 외'에서는 '-어'의 탈락을 공통적으로 겪는다.  
 둘째, 내륙지역(공주·천안)의 방언형으로 활용화 조건의 어간말 모음 '오/우 및 이'에 '-어요'가 통합될 경우는 활용화가 실현된다. 이는 일반적인 중부방언형이다. 반면 서부지역(보령·태안)의 방언형으로 활용화 조건의 어간말 모음에 '-어요'가 통합될 경우는 '어 → 으' 모음상승 규칙의 확대에 의한 교체와 탈락형이 실현된다. 'ㅅ, ㅃ' 불규칙 활용어도 동계의 것이다.  
 셋째, 어간말 모음 '으'의 경우, 공주·천안의 실현형은 중부방언과 마찬가지로 'ㄱ + 어요 → 끼유'처럼, 어간말 모음 '으'의 탈락형을 보여 준다. 그러나 보령·태안은 'ㄱ + 어요 → 끼유'처럼, 어미 두모음 '-어'의 변이형을 보여 준다.  
 어간말 모음 + '-어요' 통합형에서의 이러한 실현 경향은 '-어'의 통합에서도 대동소이하다.

- 13) 보령·태안 지역의 어간말 모음 '이 + -어'의 통합에서 '-어'의 탈락형은 적극적이다. 다만, '-어요'와 달리 '-어'는 소수의 활용화정도 발견된다.

'-어' 탈락형 : 치야지, 짜야, 왕기야, 때리야, 끓이야, 밑지야, 흐리야, 투두리야, 들이야니개 등

활용화형 : 밑져야, 처야, 익혀야

- 14) 'ㅅ' 불규칙 활용어에서도 y계의 활용화가 실현된다. 이를테면, 공주·천안의 '짓(作) + 어요'에서의 '저유 → 저유' 실현이다. 반면 보령·태안은 '-어'의 변이에 의한 '지유'를 보여 주어서, 여기에서도 두 지역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23. 다음은 어간말 자음에 ‘-어요’가 통합될 때의 실현형이다. 이 구조에서는 어간말 자음이 연음되는 음절화가 일차적이다. 그런데 어간말 모음처럼, 지역에 따른 ‘-어’의 변이가 일관되게 적용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어간말 자음의 성질에 따른 실현형의 차이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어간말 자음의 경우는 조음위치 자질의 측면에서 같은 서열음들을 중심으로 그 실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특징에 조음방법 자질이 관여하는지도 살필 것이다.

먼저, 어간말 양순음의 경우이다. 이 경우 방언형들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견된다.

- (11) 공주·천안 : 발버유, 자버유, 뽀버유, 더퍼유, 다머유, 가머유, 쌀머유, 시머유  
보령·태안 : 발부유, 자부유, 뽀부유, 더푸유, 가무유, 시무유, 쌀무유

공주·천안 지역에서는 ‘-요→[-유]’와 ‘-어’로의 음성모음화<sup>15)</sup>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중부방언형이다.<sup>16)</sup> 반면 보령·태안 지역에서는 원순모음화 형태를 일별할 수 있는데, 이는 ‘어→으’를 선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우’ 변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령·태안 지역은 ‘어→으’를 겪고 원순모음화까지 적용된 형태이다. ‘잡+아요→잡어유(음성모음화)→자브유→자부유’처럼.<sup>17)</sup>

- (12) ㄱ. 공주 : 다더유, 무더유/아너유, 시너유  
천안 : 다더유, 마타유/아너유, 시너유

15) ‘-어요’의 ‘-어’는 선행 어간 모음에 따라 ‘-아’로의 교체도 있다. 역사적으로 모음조화의 결과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아’가 ‘-어’로 변이됨을 볼 수 있는데, 필자는 이를 음성모음화라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정태(2006) 참조.

16) 공주·천안의 어간말 양순음 + ‘-어야’의 통합도 거의 같은 실현을 보여 준다.

자버야지, 씨버야, 지퍼야(깊어야), 발버야

17) 보령·태안의 어간말 양순음 + ‘-어야’의 통합에서도 ‘어→으’ 및 ‘으→우’의 원순모음화를 발견할 수 있다.

자부야, 발부야

그런데, ‘-어야’의 경우는 이 지역에서 ‘씨버야’ 등도 발견되며, 심지어 태안 지역에서는 ‘자비아(잡아야), 기피야지(깊어야지)’ 등의 형태도 발견되었다. 용례가 더 많아지고, 더 고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 ㄴ. 보령 : 거드유~거디유, 다디요~유/시느유  
태안 : 다드유, 무드유/시느유

어간말 치조음 'ㄷ, ㄴ'의 경우는, (12ㄱ)처럼 일반적인 연음화형이다.<sup>18)</sup> 그렇지만 (12ㄴ)의 보령·태안 지역에서는 '어→으'를 보여주고 있어, 여기에서도 두 지역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테면, 보령·태안 지역에서는 모음상승에 의한 '으'로의 변이를 적극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이다.<sup>19)</sup> 뿐만 아니라 '어→으'에서 다시 '이'로의 전설모음화까지 진행된 모습도 보여 준다. 이를테면, 보령 지역에서는 '(달아요→)다드유'의 변이형일 '다디유(요)'가 발견되며, '거드유~거디유(걷어요)'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13)의 어간말 치조음 'ㄹ'인 경우는 보령·태안 지역에서 '으→이' 전설모음화를 더 적극적으로 보여 준다.<sup>20)</sup> (14)의 'ㄹ' 불규칙 활용형도 (13)의 어간말 치조음 'ㄹ'에 준하여, 두 지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13) 공주·천안 : 가러유, 아러유, 쓰러유, 마유(말다)  
보령·태안 : 가리유~가류, 아리유, 쓰리유~쓰류, 마리유~마류(말다)  
(14) 공주·천안 : 짤러유, 골러유, 몰러유, 줄러유  
보령·태안 : 몰르유, 골르유~골리유, 짤르유~짤리유

물론 (12ㄴ)의 '거드유~거디유(걷어요)' 등의 공존에서 '어→으' 변이와 '어→이'로의 개별적인 변이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음체계상 '어→이'의 대각선 변이는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일 계열의 '어→으' 변이에 이은 동일 서열의 '으→이' 규칙 순으로 보고자 한다. '으→이'의 전설모음화는 (15)와

18) 공주·천안의 어간말 치조음(ㄷ, ㄴ) + '-어야'의 통합도 거의 같은 실현을 보여 준다. 다다야지, 바디야, 무디야, 시너야

19) 보령·태안의 어간말 치조음(ㄷ, ㄴ) + '-어야'의 통합에서도 '어→으'의 변이를 발견할 수 있다.

다드야, 거드야지요, 시느야

20) 그런데 '-어야' 통합형에서는 '어→으'까지만 보여 준다. '아르야(알아야), 머르야지(떨어야지), 부르야(불어야), 드르야지(들어야지)' 등처럼.

같이 치조음 아래 환경의 충남방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설모음화는 다음 (17), (18)처럼, ‘ㅈ, ㅉ’ 다음에서도 실현된다. 전남방언의 형태소 내부 및 경계에서 전설모음화가 경구개음 및 치조음일 때, 실현되는 것과 동계의 것이다.(위진 2010:81)

- (15) 노니루?(논으로?), 바니루(반으로), 오른소니루(오른손으로),  
끄니루(끈으로), 병위니루(병원으로), 배까티루(바깥으로),

반면 어간말 치조음 ‘ㅈ, ㅉ’와 경구개음 ‘ㅈ, ㅉ + -어요’ 통합에서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여 준다. 같은 치찰음으로 자연부류를 형성하지만, 규칙 적용에서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sup>21)</sup> 먼저 치조음 ‘ㅈ’의 경우를 보자.

- (16) ㄱ. 공주 : 씨서유, 버서유, 지서유(개가 짓다)  
          천안 : 버서유, 지서유(개가 짓다)  
      ㄴ. 보령 : 버스요~유, 주스요~유(짓다)  
          태안 : 버스유, 지시유~지슈~지서유(개가 짓다)

(16)의 치조음 ‘ㅈ’은 (12)에서의 공주·천안 지역 및 보령·태안 지역의 실현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보령·태안 지역에서는 ‘어 → 으’ 및 ‘으 → 이’의 변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당진 지역어에서 용언의 전설모음화가 ‘ㅈ’을 제외한 치찰음 뒤에서 일어난다는 사실(한성우 1996:43)과 비교할 때, 당진 지역과 인접한 (16ㄴ)의 태안 지역에서 ‘개가 짓 + 어요 → 지스유 → 지시유~지슈’의 ‘으 → 이’ 전설모음화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 (17) 공주·천안 : 마저유, 안저유, 꼬저유, 쪼쳐유,  
          보령·태안 : 꼬즈요~꼬지요, 안지요, 쪼치유, 씨치유

21) 이러한 복잡한 양상이 국어의 전설모음화를 규칙화하는데 어려운 부분이다. 한성우 (1996:43)에서도 전설모음화에 대한 몇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어간말 경구개음 'ㅈ, ㅊ'의 (17)도 (16)과 지역별 차이가 대동소이하다. 다만, 보령·태안 지역에서 '으→이'의 전설모음화가 보다 적극적일 뿐이다.

그런데 어간말 치조음 'ㅈ'의 경우는 이제까지 두 지역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즉 'ㅈ'는 '있-, 없-'과 선어말 어미 '-었-'에서의 경우인데, '어→으'의 변이에 이은 '으→이' 전설모음화를 아래 (18)처럼, 동일하게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sup>22)</sup>

- (18) 공주 : 이쑈/읍씨유~업씨유/도라가셔쑈, 해쑈, 꺾씨유~꺾쑈, 자버쑈  
 천안 : 있어유~이쑈/읍씨유~음씨유/머거씨유, 와씨유~와쑈, 자버씨유  
 보령 : 이씨유~이쑈/읍씨유~읍쑈/머거쑈, 와쑈, 꺾쑈  
 태안 : 이씨유~이쑈/읍씨유~읍쑈~읍씨유/해씨유, 머거쑈, 자버쑈, 꺾씨유

공시적으로 '있 + 어요 → 이쓰유 → 이씨유 → 이쑈(동음생략), 없 + 어요 → 읍쓰유 → 읍씨유 → 읍쑈, 덕 + 었 + 어요 → 머거쓰유 → 머거씨유 → 머거쑈'로 볼 수 있어, 치조마찰음 'ㅈ'의 경우는 '어→으'의 변이와 '으→이'의 전설모음화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고 있으며, 동음생략으로도 진행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미 김정태(2006:1216)에서는 이들의 '어→으'와 '으→이'를 모음상승과 전설모음화가 급여의 규칙관계에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와는 달리, 공주·천안 지역에서까지 전설모음화 및 동음생략을 겪은 방언형을 보여주고 있음은 특징적이다.<sup>23)</sup>

마지막으로 어간말 연구개음 + '-어요'의 통합형도 지역차이를 보여 주는 앞에서의 방언형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22) 천안 지역 제보자의 경우는 주로 연음의 형태를 보이지만, 다른 토박이들을 통해서도 '어→으' 및 '으→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3) 'ㅈ' 발음 활용의 경우에, 공주·천안 지역에까지 전설모음화가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최전승(2004:537)에서의 존재사 '이시-/잇-(有) 활용형의 변화 문제와 결부되어 있을 것으로 보지만, 본고의 전설모음화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이 문제는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다.

- (19) ㄱ. 공주 : 바거유, 마거유, 보까유(복아요)  
 천안 : 바거유, 마거유, 보껴유  
 ㄴ. 보령 : 바그유, 마그유, 머그요  
 태안 : 바그유~바기유, 마그유~마기유, 보끼유~보꾸

(19ㄱ)처럼, 공주·천안 지역에서 대부분 연음화형인데,<sup>24)</sup> 보령·태안 지역에서는 ‘-어’의 변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즉 모음상승에 의한 ‘으’로의 변이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up>25)</sup> 뿐만 아니라, ‘어→으’에서 다시 ‘이’로의 전설모음화까지 진행된 모습도 보여 준다. 이를테면, 태안 지역에서 ‘바그유~바기유(박어요), 마그유~마기유(막아요)’의 공존을 통해 ‘으→이’ 전설모음화를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어간말 연구개음의 경우에도 ‘으→이’의 전설모음화는 공식적으로 실현된다고 본다. 충남방언 여러 지역에서 (20ㄱ)과 같은 방언형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 (20) ㄱ. 시기루(식(式)으로), 공통저기루(공통적으로), 솥쏘기루(솥속으로),  
 총이루두(총으로도),  
 ㄴ. 지비루(집으로), 아피루(앞으로), 거리미루(거름으로),

그런데 (20ㄴ)처럼, 충남방언에서는 소극적으로나마 어간말 양순음의 경우에도 전설모음화가 실현된다.(물론 ‘집으로→지부루, 앞+으로→아푸루’ 등의 원순모음화가 보다 적극적이다.)

한성우(1996:44)에서는 ‘앞, 절, 밧’은 모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여서 처격어미와 결합된 형태(아피, 저티, 미티)가 굳어져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구격 ‘-으로’와의 통합형 ‘아피루, 저티루, 미티루’를 전설모음화로 다루지 않고, ‘아피+으로, 저티+으로, 미티+으로’에서 ‘으’가 삭제된 것으로서 다른 개음절 어간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예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설모음화의 동화주로

24) 공주·천안의 어간말 연구개음 + ‘-어야’의 통합도 연음화형을 보여 준다.

머거야, 말거야, 따까야지, 끼껴야유 등

25) 보령·태안의 어간말 연구개음 + ‘-어야’의 통합에서도 ‘어→으’의 변이를 발견할 수 있다.

말그야, 따끄야, 바그야니께, 등

설단음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ㄱ)같은 연구개음의 경우에도 전설모음화가 발견되고, “집썸?(집신), 지비루 맹글지유”(천안)처럼, 장소가 아닌 도구로서의 ‘집(<집)의 양순음에서도 전설모음화가 실현된다.

따라서 어간말 연구개음의 경우, 보령·태안 지역의 방언형도 ‘어→으’ 변이와 ‘으→이’ 전설모음화를 겪은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어간말 자음 ‘ㅎ’의 경우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이때 후음 ‘ㅎ’의 탈락은 모음과 모음 사이, 또는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어의 대표적인 음운현상이다. 따라서 ‘Vㅎ + 어요’의 구조가 본고의 대상이 되므로, 일차적으로는 ‘ㅎ’이 탈락한다. 그러면 어간말 모음 + ‘-어요’의 구조가 된다. 이의 실현형도 ‘ㅎ’ 탈락 이후의 어간말 모음에 따른 방언형이 예측된다.

- (21) ㄱ. 공주·천안/보령·태안 : 짜:유.  
 ㄴ. 공주·천안/보령·태안 : 느:유  
 ㄷ. 공주·천안 : 놔유/조아유  
     보령·태안 : 노유/조으유  
 ㄹ. 공주·천안 : 괜차너유~갠차너유, 모르자너유  
     보령·태안 : 괜차뉴, 두겹자뉴, 새자뉴, 이짜뉴, 모르자뉴

먼저 (21ㄱ)은 어간말음 ‘ㅎ’인 ‘쌍-’이 어미 두모음 ‘-어’와의 활용이므로 어간말 모음 ‘아’에 준한다. 다만, ‘ㅎ’탈락 이후 동음탈락에 따른 보상이 수반되어 충남 전역에서 ‘짜:유’ 장음화가 실현될 뿐이다.

그리고 (21ㄴ)의 ‘녕-’도 어간말음 ‘ㅎ’을 가지고 있어, 어미 두음 ‘-어’와의 활용에서 ‘ㅎ’이 탈락된다. 충남방언형 ‘느:유’ 실현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하나는, ‘녕 + 어요 → 너:유(‘ㅎ’탈락, 동음탈락) → 느:유(모음상승)’가 공통적으로 실현됐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지역간의 차이를 전제하는 것이다. 즉 어간말 모음 ‘오, 우, 이’ 등에서 지역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두 지역간의 기저형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공주·천안은 기저형을 ‘녕-’으로 설정하고, ‘-어요’와의 활용에서 ‘녕 + 어요 → 너어유 → 너유(동음탈락) → 느:유’

‘어→으’의 모음상승)’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문제는 여전히 기저형을 ‘녕-’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보령·태안은 ‘녕-’으로 재구조화된 기저형을 설정하고, ‘녕+어요→ㄴ:유’에서 ‘-어’의 변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21ㄷ) ‘녕-’의 활용은 두 지역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ㅎ’ 탈락은 어간말 모음 ‘오’가 활음화의 조건을 형성해 준다. 따라서 공주·천안은 활음화형을 보여 주며, 보령·태안은 ‘-어’ 변이형을 보여 준다.<sup>26)</sup> 어간말 모음 ‘오’의 실현 양상(예 (5) 참조)과 동계의 것이다.

반면, ‘중+아요’는 ‘녕-’과 같은 활용을 보이고 있지 않다. 형태론적인 과제일 듯하다. 다만, ‘ㅎ’의 탈락만 보이고, ‘조아유’(공주·천안)와 ‘조으유’(보령·태안)가 지역적으로 변별되고 있을 뿐이다.

(21ㄷ)처럼, ‘ㅎ’ 탈락은 접미사로 쓰이는 ‘-잖-(<-지않-)’이 모음 어미와 통합할 때도 나타난다. ‘-잖+아요’의 구조에서 ‘ㅎ’탈락은 어간말 치조음 ‘ㄴ’의 경우와 같을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공주·천안은 앞의 (12ㄱ)처럼, 연음화된 방언형 ‘괜차너유~괜차너유’ 등을 보여 준다. 그런데 보령·태안은 앞의 (12ㄴ)에서 ‘신+어요→시느유’처럼, ‘어→으’ 변이만 보이는 것과는 달리, ‘으’의 탈락형까지 보여 준다. ‘괜차뉴(괜찮+아요), 새자뉴(새잖+아요), 해짚뉴(했잖+아요)’ 등처럼.<sup>27)</sup>

결국, 어간말 자음에 통합되는 어미 두음 ‘-어’의 변이도 충남 서부지역과 내륙지역에서 달리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같은 충남방언에서도 ‘X]vst+어요’의 실현형에 다른 음운과정이 적용되어, 지역적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6) 보령 지역에서 ‘녕+아야’의 활용은 ‘노야~노으야’의 공존이 발견된다. ‘어→으’로의 교체 후 탈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용례이다.

27) 보령·태안 지역에서 (12ㄴ)과 달리, (21ㄷ)과 같은 실현은 4음절 이상이라는 음절수의 제약이 있어 보인다. 음절 수가 ‘어→으’ 이후 ‘으’의 탈락과 같은 변이를 후행시켰다고 본다.

## 〈어간말 자음 + '-어요'의 통합형〉

어간말 자음 + '-어요'의 충남방언형은 공통적으로 '[-유]'로 실현되면서, 자음의 종류 또는 별개의 음운과정에 의해 지역적 차이를 보여 준다.

먼저 내륙지역(공주·천안)의 어간말 자음에 '-어요'가 통합될 경우는 연음되어 음절화가 실현된다.(말자음 'ㅅ'은 예외) 이는 일반적인 중부방언형이다.

반면 서부지역(보령·태안)에서는 어간말 양순음에 '-어요'가 통합될 경우, '어 → 으' 모음상승 규칙의 확대에 의한 교체와 '으 → 우'의 원순모음화까지 겪기도 한다. 그리고 어간말 치조, 경구개, 연구개음의 경우는 '어 → 으' 변이와 수의적인 전설모음화 '으 → 이' 및 동음탈락까지도 실현된다.

다만, 어간말 치조마찰음 중 'ㅅ'의 경우, 충남전역에서 '어 → 으' 변이 및 '으 → 이'와 동음탈락까지 적용되는 특이한 방언형이 발견된다.

그리고 어간말 자음 'ㅎ'은 '-어요'와의 통합에서 탈락되므로, 어간말 모음의 방언형에 준한다.

### 3. 결론

본고는 'X]vst + 어요'의 충남방언형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이었다. 충남을 아우를 수 있는 네 지역(공주·천안·보령·태안)에서의 실현형이 일단은 말꼬리가 긴 [-유] 실현을 보여, 이것이 충남방언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오 → 우' 모음상승이 그 기제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X]vst + 어요'의 실현형은 어간 말음이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 지역적으로도 두 부류의 충남방언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방언형의 실현에 작용한 음운론적 기제가 무엇인가를 고찰하였는바,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 1) 'X]vst + 어요'의 실현형 중 해요체 '[-유]'는 충남방언의 대표가 된다.
- 2) 이 충남방언형에는 어간말음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어간말 모음일 경우와 어간말 자음일 경우이다.
- 3) 어간말음에 따른 두 부류의 각각에는 다시 지역에 따른 두 부류의 방언형이 확인되었다. 즉 충남 내륙지역인 공주·천안과 서부 해안지역인 보령·태안 지역이

이다.

4) 어간말 모음 + ‘-어요’의 통합형일 경우,

첫째, 어간말 모음 ‘아, 어, 애, 에, 외’에서는 ‘-어’의 탈락을 공통적으로 겪는다.

둘째, 내륙지역(공주·천안)의 방언형으로 활음화 조건의 어간말 모음 ‘오/우 및 이’에 ‘-어요’가 통합될 경우는 활음화가 실현된다. 이는 일반적인 중부방언형이다. 반면 서부지역(보령·태안)의 방언형으로 활음화 조건의 어간말 모음에 ‘-어요’가 통합될 경우는 ‘어→으’ 모음상승 규칙의 확대에 의한 교체와 탈락형이 실현된다. ‘ㅅ, ㅈ’ 불규칙 활용어도 동계의 것이다.

셋째, 어간말 모음 ‘으’의 경우, 공주·천안의 실현형은 중부방언과 마찬가지로 ‘ㄱ + 어요 → ㄱ유’처럼, 어간말 모음 ‘으’의 탈락형을 보여 준다. 그러나 보령·태안은 ‘ㄱ + 어요 → ㄱ유’처럼, 어미 두모음 ‘-어’의 변이형을 보여 준다.

어간말 모음 + ‘-어요’ 통합형에서의 이러한 실현 경향은 ‘-어야’의 통합에서도 대동소이하다.

5) 어간말 자음 + ‘-어요’의 통합형일 경우,

첫째, 어간말 자음 + ‘-어요’의 충남방언형은 공통적으로 ‘[-유]’로 실현되면서, 자음의 종류와 음운과정에 따라 지역적 차이를 보여 준다.

둘째, 내륙지역(공주·천안)의 어간말 자음에 ‘-어요’가 통합될 경우는 연음되어 음절화가 실현된다.(말자음 ‘ㅅ’은 예외) 이는 일반적인 중부방언형이다.

셋째, 서부지역(보령·태안)에서는 어간말 양순음에 ‘-어요’가 통합될 경우, ‘어→으’ 모음상승 규칙의 확대에 의한 교체와 ‘으→우’의 원순모음화까지 겪기도 한다. 그리고 어간말 치조, 경구개, 연구개음의 경우는 ‘어→으’ 변이와 수의적인 전설모음화 ‘으→이’ 및 동음탈락까지도 실현된다.

다만, 어간말 치조마찰음 중 ‘ㅆ’의 경우, 충남전역에서 ‘어→으’ 변이 및 ‘으→이’와 동음탈락까지 적용되는 특이한 방언형이 발견된다.

넷째, 어간말 자음 ‘ㅎ’은 ‘-어요’와의 통합에서 탈락되므로, 어간말 모음의 방언형에 준한다.

아울러 ‘X]vst 어요’의 충남방언형은 지역적으로 두 부류가 특징적인데, 이것이 충남 핵방언권의 설정에 관련될 지의 과제가 놓여 있다. 도수희(1977)의 충남

핵방언권 설정과는 상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남과 인접 지역들에 대한 확대되고 천착된 논의가 후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또 다른 과제는 보령·태안 지역에서 실현되는 '어 → 으'의 변이와 전북방언에서 '-어'가 '으'로 재구조화 또는 변이된 것과의 관련성이다. 여제로 남긴다.

주제어 : 'X]vst + 어요'의 방언형, 충남방언, '-어'의 변이, 모음상승, 전설  
모음화, 해요체

### 〈참고 문헌〉

- 강희숙(2000), 「전설모음화의 발생과 방언 분화」 『한국언어문학』 제44집, 521-541
- 고광모(2000), 「상대 높임의 조사 '-요'와 '-(이)니쇼'의 기원과 형성 과정」 『국어학』 36, 국어학회, 259-282
- 곽충구(1997), 「중부방언의 특징과 그 성격」 『한국어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39
- 권재일(1998),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 김남정(2006), 「충북 방언의 비격식 상대경어법에 대하여」 - 충북 제천 명도리 방언을 중심으로-, 제3회 한국방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옥화(2000), 「전북방언 '-어X'계 어미의 재구조화」 『국어학』 36, 국어학회, 97~131
- 김용경(1997), 「높임의 토씨 '요'에 대한 연구」 『한말연구』 3, 한말연구학회, 11~27
- 김정아(2003), 「대전·충남지역의 언어적 특징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1)」 - '구개음화' 현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2, 어문연구학회 25-58
- 김정태(2003), 「천안방언의 모음상승에 대하여(1)」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학회, 53~74
- 김정태(2004), 「천안 방언 '어 → 으'의 모음상승에 대하여」 『한글』 266, 한글학회, 49-75
- 김정태(2006-1), 「충남방언 활용에서의 음성모음화」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279-299
- 김정태(2006-2), 「충남방언의 음운현상과 음운규칙」 이병근선생퇴임기념 국어학 논총, 태학사, 1203-1221
- 김정태(2010), 「[X]vst + 어요' 충남방언형의 외연(外緣)과 특징」 『방언학』 11, 한국방언학회, 59-84
- 도수희(1965), 「충청도 방언의 위치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8, 국어국문학회, 237-239
- 도수희(1977), 「충남방언의 모음변화에 대하여」, 이승녕선생고회기념 국어국문학 논총, 탑출판사, 95~124

- 도수희(1987), 『한국어 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 서정목(1993), 「국어 경어법의 변천」 『한국어문』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손명기(2006), 「대전에서의 종결어미 '-유'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방언학』 3, 한국방언학회, 213-235
- 위진(2010), 「전설모음화의 발생과 적용 조건」 『한국언어문학』 제73집, 69-89
- 이철수(1986), 「현대국어의 발음경향에 대하여」 - 모음상승경향을 중심으로 - 미원우인섭선생화갑기념논문집, 집문당, 51~69
- 조오현(2004), 「충청남도 청양방언 의향씨끝 {-유}의 억양에 의한 서법 체계 연구」 『한말연구』 14, 한말연구학회, 247-278
- 최규일(2003), 「'-요'에 관한 총체적 연구」 『한국어의미학』 12, 한국어의미학회, 171-227
- 최명옥(1995), 「[X]Vst 어 Y'의 음운론」 『진단학보』 79, 진단학회, 167-189
- 최전승(2004),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역락(도서출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한국방언자료집』 IV(충청남도편),
- 한성우(1996), 「당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제141호

[Abstract]

## A phonological Study of 'X]vst + eoyo(어요)' in Chungnam Dialect

Kim Jeongtae

This study explores a phonological study of 'X]vst + eoyo(어요)' in Chungnam Dialect. Dialects of four regions including Gongju, Cheonan, Boryeong, and Taean are realized as [-yu] with long sound ending, which are represented as Chungnam dialect. In fact, this is caused the mechanism of vowel raising from 'o → u'.

In addition, 'X]vst + eoyo(어요)' dialects are different based on whether its final word is vowel or consonant. Also,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two types of Chungnam dialect according to region.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what are phonological mechanisms which operate realization of those dialects.

First, '[-u]' is represented as Chungnam dialect among 'X]vst + eoyo(어요)' dialects. Second, this Chungnam dialect can be categorized into two largely based on whether final word is vowel or consonant. Third,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two dialects according to region within those two categorization, or inland region such as Gongju · Cheonan regional dialect and west coastal region dialects such as Boryeong · Taean regional dialect. Forth, in case of integrated type which has a vowel in word final + '-eoyo', a variety of phenomena are observed in two regions. One is that there is '-eo' deletion in common in word final vowels such as 'a, eo, ae, e, oe'. The other is that gliding is

realized on the condition that word final vowel 'o/u and l' are integrated with '-eoyo' in dialect of inland area (Gongju · Cheonan), which is a typically middle area dialect. However, replacement and deletion are realized due to expansion of vowel raising rules, 'eo → eu', in case that '-eoyo' is integrated with word final vowel with condition of gliding. Irregular conjugation of 's (ㅅ) and b (ㅂ)' experienced this realization too. Another example can be found in the case of word final vowel 'eu' where realization of Gongju · Cheonan shows variation of '-eo', two vowels on word final, as in 'kkeu + eoyo → kkeoyu' like middle area dialect. On the contrary, Boryeong · Taeon regional dialect shows variation of '-eo', two vowels on word final, as in 'kkeu + eoyo → kkeuu'. This tendency of realization in the case of integration type in word final vowel + '-eoyo' is about the same in the integration of '-eoya'. Finally, various phenomena are provided depending on two regions in the case of integration type such as word final consonant + '-eoyo'. One is that Chungnam dialect in word final consonant + '-eoyo' is realized as '[-u]' in common, showing regional difference subject to the types of consonants. Another is that when word final consonant of inland area (Gongju · Cheonan) is integrated with '-eoyo', it is prolonged except final consonant 'ss', which is a common middle area dialect. Additionally, when word final bilabials and '-eoyo' are integrated in west region (Boryeong · Taeon), they experience replacement due to the expansion of vowel raising rules in 'eo → eu' and even vowel rounding in 'eu → u'. Also, in the case of word final alveolar, hard palate, and soft palate, variation in 'eo → eu', voluntary vowel fronting in 'eu → i', and deletion of same sound are realized. Yet, a distinctive dialects are observed where mutation in 'eo → eu', 'eu → i', and deletion of same sound are applied throughout Chungnam area. In the case of 'ss' among alveo fricatives in stem final. In addition, 'h (ㅎ)', consonant in stem final is classified as dialect of stem final vowel as it is deleted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with '-eoyo'.

【Key words】 : A Dialect Form of the 'X]vst + 어요[əyo]', Chungnam dialects,  
A variation of '-어(-ə)', Vowel raising, Vowel Mutation, A speech level

---

---

김정태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9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kimjt@cnu.ac.kr

---

---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12월 3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